

영원한 승리의 축포

지난 7월 27일 21시, 뜻깊은 전승절을 맞이한 평양의 밤하늘가에 축포,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지식을 뒤 흔드는 장쾌한 퇴성, 밤하늘을 치달아올라 꽃보라인양 황홀하게 부서져내리는 축포탄들, 온 누리를 물들이는 오색찬란한 불꽃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드리는 경의를 담아 축포의 불꽃들이 창공에 아름다운 오각별모형을 펼쳐자 군중이 터치는 격정의 환호성이 밤하늘가로 메아리쳤다. 눈부시게 솟아올라 천갈레만갈레 불보라를 날리는 축포를 바라보며 리남호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원은 《정말 멋있다. 저 환희의 축포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한 전승세대들에게 드리는 위훈의 금별달이라고 아름다운 꽃달이 아니겠는가.》고 흥분된 심정을 터뜨렸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축포가 발명되거나 때로부터 축포발사는 많은 나라들에서 국가적명절이나 민족적명절을 경축하는 행사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낸 영웅조선의 승리자의 긍

지를 안고 터져오르는 축포를 바라보는 이 나라 인민의 격정과 환희는 참으로 남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7월의 하늘가에 터져오르는 눈부신 축포의 천만불꽃들에는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이 아깝없이 바쳐싸운 전승세대들의 불굴의 투쟁과 빛나는 위훈이 어려워졌다.

돌이켜보면 1950년대의 조국해방전쟁은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청소년 공화국에 있어서 너무도 힘겨운 전쟁이었다.

적들은 크지 않은 이 땅에 방대한 침략무력과 살인장비들을 투입하였으며 가장 야만적인 살인방법과 파괴수법들을 적용하였다. 침략전쟁들에서 악명을 떨치고 풍부한 실전경험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살인장군들과 책략가들도 수많은 동원되었다.

보병총과 원자탄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신생조선이 이긴다는것은 외부세계의 시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적들은 크게 오산

하였다. 침략자들은 위대한 수령의 명도를 받는 공화국인민을 잘못 보고 덤벼들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을 모신 공화국은 처음부터 이긴 전쟁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주제전법, 령활한 전략전술은 수적, 기술적우세를 떠드는 적들에게 거듭되는 참패를 안긴 결정적요인이었다.

전화의 나날 인민군용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전 전선에서의 연속 타격과 포위섬멸전, 비행기사냥군조운동과 땅고사냥군조운동을 비롯한 주제전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침략자들에게 쓰디쓴 패배를 안겼다.

피끓는 가슴으로 불붙는 적의 화구를 막아 돌격로를 열고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원수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긴 인민군용사들의 투쟁위훈은 오늘도 만사람을 격동시키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동서고금의 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군사적적들이 무수히 창조되었다. 4척의 어뢰정

으로 적순양함을 수장시키고 4문의 포로 5만대군의 상륙을 3일간이나 막아냈으며 재래식비행기로 분사식비행기를 쏘아떨어진 인민군용사들의 불사신의 기상은 적들을 전멸시켰다.

침략자들을 타승할 수 있는 제일 강한 힘은 민중과 사랑이 발휘하는 힘이다. 자기의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불타는 사랑은 그것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를 낳는 법이다.

공화국인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은 곧 자기 위업, 수령이 령도하는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였다.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기에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은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전쟁에서 이긴다고 한 범동농민의 소박한 말에도 어려웠었고 전쟁만 이기면 복귀건설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고 한 락인의 평범한 녀성당원의 대답에도 깃들여있었다.

망국노의 비참한 처지를

버져리케 겪어보고 해방후 공장파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어 인간다운 삶을 마음껏 누려온 인민에게 있어서 참다운 존엄을 안겨준 공화국정권과 정다운 고향산천, 자기 손으로 마련한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은 목숨보다 더 귀중하였다. 이 모든것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은 원수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거대한 힘으로 분출되었다.

후방인민들은 적들의 맹목격속에서도 식량증산과 전시수송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적강점지역들에서 나어난 학생소년들까지 원수들과의 싸움에 용약 떨쳐나 조국의 초토를 피로써 지켜냈다.

참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군사적공세를 막아내고 자기의 령도와 자주권을 피로써 사수해낸것은 우리 민족사와 세계전쟁사에 전무후무한 영웅신화를 아로새긴 특대사변이였다.

어찌 그뿐이랴. 지난날 약속으로 빛을 잃었던 조선의 세계가 경탄하여마지 않는 영웅의 나라로 력사무대에 당당히 내세우고 지구상

에서 반제자주와 사회주의, 민족해방혁명의 세찬 폭풍을 안아오게 한 전환적계기로 되었다.

바로 그래서 전화의 용사들을 위해 뿌리는 꽃보라인양 눈부시게 황홀한 축포를 바라보며 누구나 그렇듯 커다란 긍지와 환희에 잠겨있을 것 아니라

밤하늘가를 물들이는 축포의 불꽃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전화의 나날로부러 철의 호를마냥 도도하게 굽이쳐흐른 영웅조선의 승리의 년대들을 다시금 긍지높이 안아올랐다.

천리마의 역센 나래를 펼치고 사회주의변영의 대로를 힘차게 열어놓은 1960년대와 1970년대, 1980년대, 주체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국의 려명을 불려온 1990년대와 2000년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강도적인 침공을 물리친 전승신화창조의 주인공들이 전후 아버지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천리마의 기상으로 자주강국의 터전을 다진 주인공들이었고

승고한 정신과 넋을 후대들에게 심어준 위대한 스승들이였다.

전쟁의 불구름과 전후 곁쌓이는 시련속에서도 세대를 이어가며 굴함없이 승리만을 펼쳐온 위대한 년대들로 아로새겨져있기에 공화국의 력사는 령동한 축포의 불꽃마냥 그렇듯 빛을 뿌리고있는 것이다.

전후 근 70년간의 력사는 결코 평화시라고 할 수 없는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의 려속이였다.

그 나날 공화국은 불멸의 7.27이 안겨준 승리의 정신과 의지로 앞날을 내다보면서 국력강화의 어려운 길을 스스로 택하였으며 이제는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고강도압박과 군사적위협공갈에도 끄떡없이 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게 강화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6차 전국로병대대회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넘보지 못하게 할것이고 넘보던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것이라

고 말씀하시였다. 얼마나 가슴후련한 말씀이신가.

20세기초에 힘이 약해 대국들의 싸움마당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국권을 송두리채 강탈당하였던 조선이였다. 제국주의강도배들이 해방후 청소년 공화국을 요람기에 암살하려고 침략전쟁의 불꽃치를 들고 달려들었던 조선이였다.

그 조선이 오늘은 그 어떤 침략자도 단애에 처부실 수 있는 강위력한 자위의 힘을 가지고있고 세상이 무시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적지위에 올라섰으니 이것으로 하여 공화국은 끄떡없고 계속 승리를 펼쳐갈것이다.

그래서 전승절에 터져오른 경축의 축포가 더욱더 환희롭고 것처럼 눈부신것 아니던가. 온 세상이 우러르는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어 조선의 영광은 끝없고 승리의 축포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장쾌하게 터져오르리라는것을 전승절의 황홀한 축포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굳게 확신하였다.

영원한 승리의 7.27. 영원한 승리의 축포. 공화국은 오직 승리, 승리의 한길에 따라 노도쳐 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매혹과 흠모

다 재 다 능 하 신 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참으로 다재 다능한분이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그이께서는 어느 분야든 막히는데가 없이 환히 도통하고계신다.

버섯공장에 가시면 버섯박사가 되시고, 농장에 가시면 농학박사가 되시고, 건설장에 가시면 전문건설가들도 놀라게 하시고.

최근년간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훌륭한 일떠선 현대적이며 문명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과 살림집들이며 체육문화후생시설들을 보아도 모두 그 착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설계와 시공, 마감처리까지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의 손길이 어려워지지 않은것이 없다.

엔지니어 개건된 백두산건설연구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BIM으로 설계한 추구원맹청사에 대해 말씀하시어 전문설계가들을 놀라게 하신 사실과 설계기판들에서 작성하는 각종 대상에 대한 설계안들을 다 보시는것은 물론 그 설계안들이 안고있는 결함에 대해서도 완전히 파악하고계시는 일군들을 감동시키는데 대해서는 이미 알려지였다.

또 엔지니어는 틀라물놀이장의 설계초안을 보아주시고 부지를 너무 넓게 잡았다고 지적하시어 첫 순간에 설계의 부족점을 꿰뚫어보신

그이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이렇게 공화국의 가는 곳마다에 먼 후날에도 손색없을 훌륭한 건축물들이 앞을 다투어 일떠서고있는것은 누구도 따를수 없는 김정은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심한 지도를 주고계시기때문이다.

엔지니어는 이런 일도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에게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문득 누구에게라 없이 오픈라가 무엇인지는 알고 모으시였다.

오픈라?! 그 누구도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도 그렇것이 동행한 일군들은 물론 지하전동차를 운영하는 일군들도, 새 지하전동차의 제작자들도 처음 듣는 말이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고는 일군들에게 객차에 없는 의자와 오픈라를 배합하여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오픈라가 무엇인지 모를것이라고, 앉아서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지하전동차를 리용할 때 뭘수록 서서 간다고, 그런데 지하전동차를 타고 계속 서서 가면 힘들수 있기때문에 서있는 상태에서 살짝 걸터앉을수 있는 의자를 놓아주고있다고, 그런 지하전동차 의자가 오픈라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계속 하시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에게 오픈라가 건장에 좋기때문에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도 지하전동차를 만든데 받아들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오픈라에 대해 그렇게도 상세히 가르쳐주시는 그의 말씀은 끝이 없을상실였다. (어쩌면 그렇게도 박식하실가. 정녕 그의 지성의 세계는 얼마나 무한대한것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인, 정인들을 많이 설계하여 명성이 높은 외국의 한 원에 설계전문가가 금수산태양궁전을 돌아보고 터친 심장의 웨침을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난분이신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진보적인류가 열렬히 칭송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궁전으로 꾸렸다. 그는 소식이 일찌부터 절세위인들에 대한 흠모의 정을 안고있는 그에게 역제할수 없는 흥분을 가져다주었다. 더우기 궁전광장을 공민화하였다. 그는 한생을 원에설계가로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광장가운데 꾸려진 특색있는 중심목지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설계하시였다. 그것은 알개 된 그는 광장공원의 한가운데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원예설계에서는 세상에서 제노라 하던 나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금수산태양궁전에 와서 스승앞에 선 학생의 심정을 느낍니다. 김정은원수각하께서는 원림형성과 건축조형은 물론 미학적인 면에서도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계시는 참으로 걸출한 위인이십니다.》

이것이 어찌 원예설계가 한 사람만이 그런이겠는가. 그 누구도 따를수 없이 다재다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마나 무한대한것인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원림형성과 건축조형은 물론 미학적인 면에서도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계시는 참으로 걸출한 위인이십니다.》

인간의 재능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지니고계시는 특출한 령도적실력과 해박한 식견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다.

하다면 것처럼 다재다능하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원한 세계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인가. 그것은 공화국인민들모두를 세상 누구나 부러워하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는 그의 위대한 사색과 헌신에 뿌리를 두고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 6월에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에서 화학공업의 구조를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지속적 발전에도 올려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화학공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공업이다. 화학공업의 발전은 경공업, 농업, 건설, 기계제작 등 여러 부분의 원자재문제를 해결한다.

화학공업의 이러한 중요성으로부터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분야의 발전에 큰 힘을 넣어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나라의 화학공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그 인제양성을 위한 대학을 창설하도록 하시고 대학의 발전에 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자연기후조건과 부침평면적이 제한된 조건에서 나라의 무진장한 석회석이나 갈을 원료로 하는 화학섬유공업을 발전시켜 섬유문제를 해결하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관심속에 공화국에서는 가려져 절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도 비날론공업화학연구에 힘을 넣어 짧은 기간

에 완성하였으며 그후 비날론생산기지가 건설되게 되었다. 2.8비날론공장(당시)은 점차 생산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하여 생산능력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화학공업의 발전으로 공화국에서는 비날론, 니트론, 나이론, 스프를 비롯한 옷감들이 생산되고 염화비닐을 비롯 화학공업의 발전은 경공업, 농업, 건설, 기계제작 등 여러 부분의 원자재문제를 해결한다.

화학공업의 이러한 중요성으로부터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분야의 발전에 큰 힘을 넣어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나라의 화학공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그 인제양성을 위한 대학을 창설하도록 하시고 대학의 발전에 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자연기후조건과 부침평면적이 제한된 조건에서 나라의 무진장한 석회석이나 갈을 원료로 하는 화학섬유공업을 발전시켜 섬유문제를 해결하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관심속에 공화국에서는 가려져 절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도 비날론공업화학연구에 힘을 넣어 짧은 기간

에 완성하였으며 그후 비날론생산기지가 건설되게 되었다. 2.8비날론공장(당시)은 점차 생산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하여 생산능력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화학공업의 발전으로 공화국에서는 비날론, 니트론, 나이론, 스프를 비롯한 옷감들이 생산되고 염화비닐을 비롯 화학공업의 발전은 경공업, 농업, 건설, 기계제작 등 여러 부분의 원자재문제를 해결한다.

화학공업의 이러한 중요성으로부터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분야의 발전에 큰 힘을 넣어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나라의 화학공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그 인제양성을 위한 대학을 창설하도록 하시고 대학의 발전에 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화학공업의 이러한 중요성으로부터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분야의 발전에 큰 힘을 넣어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나라의 화학공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그 인제양성을 위한 대학을 창설하도록 하시고 대학의 발전에 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화학공업의 이러한 중요성으로부터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분야의 발전에 큰 힘을 넣어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나라의 화학공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그 인제양성을 위한 대학을 창설하도록 하시고 대학의 발전에 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화학공업의 이러한 중요성으로부터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분야의 발전에 큰 힘을 넣어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나라의 화학공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그 인제양성을 위한 대학을 창설하도록 하시고 대학의 발전에 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화학공업의 이러한 중요성으로부터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분야의 발전에 큰 힘을 넣어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나라의 화학공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그 인제양성을 위한 대학을 창설하도록 하시고 대학의 발전에 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되는 문제는 자신께서 모두 풀어주겠다고, 결린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보고 하라고 고무격려도 하시며 화학공업발전을 위해 마음써오신 그의 헌신과 고숙에 몇개 나라의 독립물로만 되여있는 기술을 우리 식으로 개발 도입하는 성과들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탄소나화학공업을 창설하는것은 공화국의 화학공업에서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주체성을 보장하며 인민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화학공업부문에 있어선 선택가스화에 의한 탄소나화학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조치들도 취하여주시였다.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을 위한 그의 심혈과 헌신의 자욱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순천리비료공장에서, 서해의 신도며 신의주의 화학섬유기지에도 뜨겁게 이어져있다.

화학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경제력과 인민생활을 높여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해 공화국의 화학공업은 날이 발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